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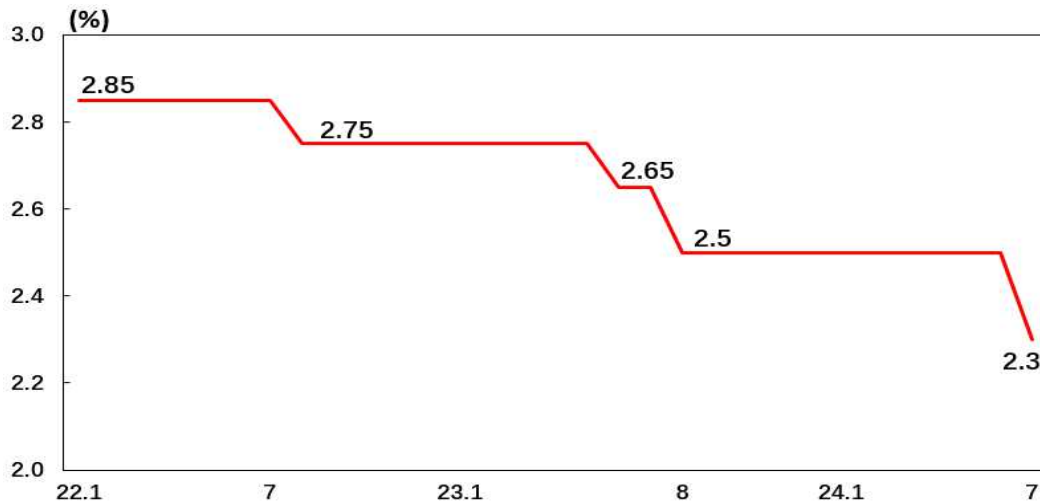
제목 인민은행,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금리 인하

1

주요 내용

- 인민은행은 2024.7.25일(목)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LF) 금리를 0.2%p 전격적으로 인하
 - MLF 금리가 2.5%에서 2.3%로 하향 조정되었으며, 2,000억위안의 신규 유동성도 공급

MLF 금리 추이



- 이번 MLF 금리 인하는 수일전 실행(7.22일)된 역RP 금리, 대출우대금리(LPR) 인하조치에 이어, 인민은행이 실물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조치로 판단

-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인민은행의 이번 MLF 금리 인하조치를 전격적이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평가(民生证券, 북경주재 한국계 상업은행 등)
 - 한편, 인민은행은 통상적으로 MLF 금리조정을 매월 15일에 공표하는데, 2024.7.15일(월) MLF 금리를 동결(2.5%)하였다고 이미 발표하였음을 고려할 때, 향후 금리조정은 빠르면 8월이라고 예상
- 금융시장에서는 전격적인 MLF 금리 인하에 대해 인민은행이 경기부양 과정에서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(民生银行 등)
 - 아울러 MLF 금리 인하폭(0.2%p)이 미세조정(0.1%p 내외) 수준을 상회한 데는 인민은행이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분석
- MLF 금리 인하조치로 인해 현지 상업은행의 신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(民生银行 등)
-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부담과 자본유출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은 향후 경기부양 과정에서 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한편, 조만간 지급준비율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(华泰证券 등)
- 한편, 교통은행 등 주요 국영 상업은행은 인민은행의 창구지도 등에 따라 오늘부터 정기에금(1·2·3·5년물) 금리를 0.1%~0.2% 일제히 인하
 - MLF 금리 인하와 함께 국영 상업은행들의 예금 금리도 하향 조정된 만큼 해당 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예상(华泰证券 등)